

“지역사회 귀감·존경받는 구심점 만들겠다”

목포임성초, 개교 70여년만 총동문회
박정수 초대 회장 취임...300여명 화합
장학금 전달 등 인재 양성 후원 ‘첫발’

“동문의 힘을 하나로 모아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임성초등학교 총동문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목포임성초등학교 총동문회가 지난 21일 오후 목포 에메랄드 웨딩홀 2층에서 총동문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목포임성초는 1945년 12월20일 개교 이래로 지금까지 75회의 졸업식을 통해 총 5천301명의 인재를 배출했으나, 그동안 총동문회가 결성되지 않아 동문의 아쉬움이 컸다.

이번 창립총회는 흩어져 있던 동심(童心)을 하나로 묶고 모교와 동문을 잇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는 동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목포임성초등학교 총동문회는 임성초 개교 70여년만에 총동문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총동문회 창립총회는 지난 21일 오후 목포 에메랄드 웨딩홀 2층에서 동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초대 총동문회장으로 20회 졸업생 박정수 동문이 선임됐다.

공연을 시작으로 정관 제정 보고 및 승인, 초대 회장과 임원진 선임, 창립선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만찬과 난타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돼 참석자들이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총동문회는 출범과 동시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

사회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의 첫발을 내디뎠다.

행사에 참석한 한 동문은 “모교에 대한 애정이 비로소 다시 하나로 모였다”면서 “이제야 임성초가 진짜 하나로 뭉친 느낌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초대 총동문회장에는 전 동문의 만장일치 추대를 받은 20회 졸업생 박정수 동문(목포농협협동조합장)이 선임됐다.

박정수 동문은 그간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과 신뢰 있는 리더십으로 널리 인정받아 왔으며, 이번 선임은 그가 목포임성초의 결집과 미래 도약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 속에서 이뤄졌다.

박 초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존경받는 임성초 총동문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임성초는 이번 총동문회 창립을 계기로 학교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포=정해선기자



나주 산포사랑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나주시 산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산포사랑회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산포사랑회는 지역 기업인을 주축으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이장단, 주민자치협의회 등 10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모임이다.

김상배 산포사랑회대표는 “소외된 이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매년 추곡대회를 열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김수경 산포면장은 “2년 연속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준 산포사랑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행정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산포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종환 기자

HD현대삼호-목포시의사회 ‘의료 지원’ 협약

임직원 진료 우대·응급 대응 체계 구축

HD현대삼호와 목포시의사회가 임직원 의료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상생협력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4일 HD현대삼호에 따르면 지난 20일 목포의 한 식당에서 김재을 사장과 목포시의사회 김명원 회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지사,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HD현대삼호와 목포시의사회가 임직원 의료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상생협력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임직원(협력사 포함) 진료 우대 혜택 제공 ▲응급환자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취약계층 대상 의료 지원 등으로, 임직원 의료 복지 향상은 물론 진료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상생 실현이 기대된다.

김명원 목포시의사회 회장은 “지역 경제 버팀목인 HD현대삼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목포시의사회가 임직원 의료 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재을 HD현대삼호 사장은 “우수한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한 목포시의사회와 협력하게 돼 뜻깊다”면서 “회사는 앞으로도 임직원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광주 서구 ‘통합돌봄 성과공유회’

광주 서구는 24일 「구정사 돌봄홀에서 7년의 돌봄, 함께한 서구」를 주제로 통합돌봄 성과공유회를 열고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회는 통합돌봄협의체, 서비스 수행기관, 협력기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 기반의 성과 공유, 향후 과제 발표, 감사엽서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공유회는 지난 7년간 서구가 이룬 통합돌봄의 변화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소상공인聯 광산구지부, 소상공인대회·청년발대식

소상공인연합회 광산구지부는 지난 21일 오후 남부대학교 산학관에서 ‘2025 소상공인대회 및 청년발대식’을 개최했다.

지역 소상공인의 화합과 성장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민형배·박국택 국회의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이기성 소상공인연합회 광주시지회장,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장 등을 비롯한 시·구의원과 소상공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에서는 오동근·정유정 회원이 광주시장 표창을, 오방용·박명하·김기곤 회원이 광산구청장 표창장을 받는 등 27명이 각종 상을 수상했으며 하재욱 회원이 청년회장에 임명되는 등 청년회가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오방용 회장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책 제안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옥근 기자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문화대상’ 기관부문 대상

전남개발공사는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최근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기관(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공모에서 전남개발공사는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기관(단체)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개발공사는 지역 내 증가하는 빈집의 실태를 고려해 기관 협력 빈집 활용 주거복지사업을 추진, 지방소멸 대응과 인구 유입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외국인근로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전용 주거 모델 수립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주거복지문화 확산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 혁신과 주거복지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광주전세버스조합, 사고 예방·안전운전 실천 캠페인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광주 서구 무전대로 일대(가아자동차 광주공장 주변)에서 안전운전 실천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전세버스 수요 급증으로 교통사고와 차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임을 감안해 운수 종사자와 승객 모두의 철저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통법규 준수, 안전거리 확보, 전방주시 철저, 승객 안전벨트 착용 등 사고 예방의 핵심 행동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나승재 이사장은 “기분을 지키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라며 “운수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연상 기자

여수 한영대 학생들, 장애인거주시설 자원봉사

여수 한영대학교는 “최근 사회복지학과 자원봉사동아리 ‘고마운 물’과 졸업생 모임 ‘고마운 물 플러스’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가나현’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봉사단은 주차장 일부 구간의 보도블럭이 내려앉아 휠체어 이동 등에 불편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블럭 평탄화 작업을 진행해 이동 안전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시설 이용자와들 ‘오감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나누고, 시설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 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김명례 가나현 원장은 “시설 이용자들의 안



전을 위해 굵은 팟방울을 흘린 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영대 ‘고마운 물’과 ‘고마운 물 플러스’는 지역사회를 위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부음

▲박완희씨 별세, 김태일·여순·혜옥·화순·해경·월자씨 모친상, 윤성준·이상훈·백승권(중흥건설 대표이사)·최재충씨 빙모상, 김정심씨 시모상, 김용연·미연·미아씨 조모상, 이상목·이화연·이화진·이화미·정민광·정혜운씨 외조모상=발인 25일(화) 오전 9시20분 광주시 서구 풍서로173-1 천지장례식장 302호(3층), 062-713-5034, 062-713-5036.